

아동의 성 도식과 성관련 과제의 기억 및 선호*

The Influence of Gender Schema on Children's Memory and Preference for Gender Related Tasks

정 순 화**

Chung, Soon Hwa

정 옥 분***

Chung, Ock Boon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a component model of gender role and differences in children's gender concepts with age and sex. The secondary purpose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gender schema and memory as well as preference for gender related task. 181 children were interviewed about gender concepts and gender related tasks.

Results indicated that three dimensions of the component model (i. e., gender label-component links, within-component links, between-component link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each other. The mean scores of gender role knowledge and attitude were different with age but not with sex.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hildren's age, sex, and gender role attitude explained both memory and preference for gender related tasks. The component model had better explanatory power than the simple model.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children's gender concepts are better described in terms of the component model than the simple model and may contribute to a theoretical rationale for gender schema theory.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모든 문화권에서 인간을 분류하는 기본적 범주

이다. 사회마다 성별에 따라 부여하는 특정한 과업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는 생물학적인 성을 근거로 성인과 아동의 역할을 구분하며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도 이를 기대한다.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소속해 있는 문화가 생물학적인 성에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는

* 본 논문은 1994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덕성여대 강사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행동이나 태도가 내면화된 것이 성역할이며, 이는 개인이 일생을 통해 수행하는 모든 역할 가운데 아주 초기에 습득되어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동발달에서 성역할 개념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학습이론이나 인지발달이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사회학습이론과 인지발달이론은 성 유형화 과정에서 각각 사회적 강화와 관찰학습, 아동의 인지발달수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성 유형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개인의 성역할 태도나 지식의 영향은 간과되고 있다.

최근 성역할에 대한 연구의 동향은 동일시과정을 통해 성 유형화가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동기중심적 견해에서 정보처리과정에 근거해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이재연, 1985, 재인용). 즉 아동의 성역할 개념은 인지발달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도 받지만 동시에 성 도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성역할 태도와 성역할 지식은 성 도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Carter & Levy, 1988), 많은 연구결과들은 성 유형화가 아동이 어떠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며 어느 정도의 성역할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성 도식 이론의 관점을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아동의 성 도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성역할 척도들은 대부분 성별과 특정한 성역할 특성(예:여아-바느질을 한다)의 연합만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역할 개념은 다차원적인 요소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연합형태와 그 습득시기도 상이하

기 때문에 단순히 성별과 특정한 성역할 특성의 연합만을 측정하는 단일차원의 척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Deaux & Lewis, 1983; Martin, Wood & Little, 1990).

지금까지의 성역할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성 도식 이론의 관점이나 구성요소 모델에 근거한 연구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Deaux와 Lewis(1984)의 구성요소모델을 근거로 성역할 척도를 제작하는 것이고, 두번째 목적은 Carter와 Levy(1988)의 연구에 근거해 성관련 과제에 대한 기억과 선호반응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성 도식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 도식은 구성요소모델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가?

둘째, 아동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아동의 성 도식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성 도식과 성관련 과제의 기억과는 관계가 있는가?

넷째, 아동의 성 도식과 성관련 과제의 선호와는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 구성요소모델

성역할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다수가 성별과 특정한 성역할 특성의 연합에 근거한

단일차원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복잡한 형태의 연합도 성별과 특정한 성역할 특성의 연합에 의해 중재되어진다는 중재가설(mediation hypothesis)에 근거한 것이다(Martin et al., 1990). 즉 남아가 트럭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남아가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 트럭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차도 좋아할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재가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아동이 행하기 어려운 추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성역할 개념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성별과 특정한 성역할 특성의 연합보다는 특정한 성역할 특성을 근거로 또 다른 성역할 특성을 추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관점이 필요하다(Grant & Holmes, 1981, 1982; Locksley, Hepburn & Ortiz, 1982).

이를 위해 Deaux와 Lewis(1984)는 성역할 개념을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 구성요소내의 연합, 구성요소간의 연합으로 파악하는 구성요소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gender label-component links)은 어떤 사람의 활동, 직업, 성격이나 외형적 특성을 근거로 그 사람의 성별을 추론하는 것이다. 즉 군인(직업)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성(성별)이며, 드레스를 입고 있는(외모) 사람은 여성(성별)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구성요소내의 연합(within-component links)은 성역할 특성의 한 구성요소(활동:바느질을 좋아한다)를 알면 동일한 구성요소내의 성역할 특성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활동:요리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성요소간의 연합(between-component links)은 성역할 특성의 한 구성요소(외모:어깨가 넓적이다)를 알면 다른 구성요소(성격특성:

자기주장이 강하다)내의 성역할 특성에 대한 추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합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정보에 근거해서 성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모형을 사용할 경우 아동의 성역할 개념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 도식의 이론적 접근

성 유형화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 중에서 정신분석이론은 유아의 이성부모에 대한 애착형성과 이후의 부모와의 동일시 과정을 성 유형화의 일차적 기제로 보고 있다(Bem, 1983).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사회화 과정을 통한 강화 및 관찰학습을 중요시하고 있으며(Mischel, 1966), 이와는 달리 인지발달이론에서는 외부인자의 영향력보다는 아동의 발달수준이 성 유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Kohlberg, 1966).

최근 연구자들은 성 유형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둔 성 도식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성 도식 이론은 성 유형화가 아동의 인지발달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도 받지만 동시에 성 도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아동이 어떠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역할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주어진 정보를 기억하고 선호하는데 차이를 보이게 되는 선택적인 기억과 선호의 과정을 통해 성 유형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성 유형화 과정에서 성 도식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연령과 성별은 중요한 변인이다. 연구결과 성 도식은 나이든 아동에 비해 어린 아동의 경우, 여아에 비해 남아의 경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아동은 제한된 인지적 능력 때문에 현저하게 눈에 띄이는 특성을 지닌 성 도식과 관련시켜 자신을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아동이 인지적으로 성숙해져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형태의 도식이 존재하게 되면 성 도식이 그들 사고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Markus, Crain Bernstein & Siladi, 1982a, 1982b; Martin & Halverson, 1981). 또한 문화적인 영향으로 여아에 비해 남아의 경우에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간의 구분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성 도식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Carter & Levy, 1988; Serbin & Sprafkin, 1986).

3. 성 도식과 성관련 과제의 기억 및 선호

성 도식 이론은 자신의 성 도식에 근거한 선택적인 기억과 선호반응을 통해서 성 유형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므로 성관련 과제에 대한 기억과 선호의 두 측면은 전반적인 성 도식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영역이다 (Carter & Levy, 1988).

1) 성 도식과 성관련 과제의 기억

아동의 기억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태도나 신념의 기능보다는 인지적 기술이나 지식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각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정보를 부호화, 저장, 인출하는 정보처리자이므로 지각자의 사전지식은 막대하게 유입되는 정보를 구조화함으로써 인지적 혼란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Case, 1985; Cohen, 1981).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동의 성역할 지식은 성관련 과제의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성관련 과제의 기억에서 지식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태도에 대한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개인의 태도와 기억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Bartlett의 연구에까지 소급되는데, 그는 주어진 정보에 대한 개인의 기억력은 정보의 특성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Bigler & Liben, 1990, 재인용). 즉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기억력은 우세하고 불일치하는 정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잊혀지거나 실제로 제시된 것과 달리 점차 자신의 태도와 유사한 것으로 왜곡되어 간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결과들은 Bartlett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학교 1,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Liben과 Signorella(1980)의 연구에서 고정관념화된 성역할 태도를 가진 아동은 기억과제에서 비전통적인 성역할을 묘사하는 그림보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묘사하는 그림을 보다 잘 기억했으며, 남아의 경우에는 남성이 등장하는 그림을, 여아의 경우에는 여성이 등장하는 그림을 보다 잘 기억했다. Levy(1989a), Kropp과 Martin(1983)의 연구에서도 고정관념화된 성역할 태도를 가진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성관련 과제에 대한 기억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 도식과 성관련 과제의 선호

아동의 성역할 지식이 성관련 과제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성관련 과제의 선호현상은 특정한 종류의 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행동의 결과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반면 인지발달이론

에서는 상당수준의 성에 대한 지식, 즉 성 항상성 개념의 습득이 성관련 과제의 선호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성도식 이론은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인식, 즉 성 정체감의 습득이 성관련 과제의 선호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Martin & Little, 1990; Serbin & Sprafkin, 1986). 즉 성 정체감의 개념을 습득한 아동은 자신의 성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생겨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다른 성 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므로 강력하게 성 유형화된 장난감이나 동성 또래에 대한 선호현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성역할 지식 뿐만 아니라 성역할 태도도 선호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정관념화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장난감이나 활동에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불일치할 경우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Carter & Levy, 1988; Martin & Halverson, 1983). 이야기에 대한 선호에서도 동성의 주인공이 등장하며 그 주인공이 고정관념화된 성역할 행동을 하는 이야기의 형태를 선호한다고 한다(이춘희, 1984).

또한 성역할 태도에 따라 선호반응시간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고정관념화된 성역할 태도를 가진 아동은 성도식이 강력하게 작용하므로 도식저지점수(schema inhibitory score)와 도식촉진점수(schema facilitative score)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자는 동일한 성역할 쌍(남성-남성, 여성-여성)에 대한 반응시간이므로 아동의 성도식이 거의 작용을 못해서 반응시간이 길어지며, 후자는 상이한 성역할 쌍(남성-여성, 남성-중성, 여성-중성)에 대한

반응시간이므로 아동의 강력한 성도식이 선택을 용이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반응시간이 짧게 나타난다(정순화, 1992; Carter & Levy, 1988; Levy & Carter, 1989).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성도식은 성관련 과제의 기억과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5세, 7세, 9세의 남녀 아동 181명이다. 연구대상은 성 정체감과 성 항상성 개념이 습득되는 5세, 7세 아동과 아울러 구성요소모델에 근거한 발달상의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9세 아동을 연령별로 각각 62명씩 선정하였다. 환경변인의 영향을 가능한한 통제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은 교사의 판단으로 제시되는 연구과제를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상 중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가정의 아동으로 구성되었다. 이같이 선정된 186명의 대상 중에서 2회의 면접과정에 모두 참여한 181명에 대한 면담 자료가 본 연구결과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성역할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성역할 척도는 Deaux와 Lewis의 구성요소모델을 근거로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16문항), 구성요소내의 연합(8문

항), 구성요소간의 연합(8문항)의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사용된 문항은 외모, 놀이 및 활동, 직업, 성격특성의 4 영역에서 남성, 여성의 성역할 특성을 동일하게 선정하였으며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400명의 국민학생, 중고생,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남성 혹은 여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성역할 특성에 대한 진술을 받아 생물학적인 성차를 묘사하거나 의미상 중복되는 특성 및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특성을 제외했을 때 적어도 2회 이상의 빈도를 보인 성역할 특성 152개를 선정하였다.

1차 과정에서 선정된 152개의 성역할 특성에 대해 1차 과정과는 상이한 400명의 국민학생, 중고생,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65% 이상의 수준에서 남성 혹은 여성의 성역할 특성으로 평가받지 못했거나 극단적인 평가를 받은 성역할 특성 및 부정적인 성역할 특성을 제외한 98개의 성역할 특성을 선정하였다.

2차 과정에서 선정된 98개의 성역할 특성에 대해 다시 60명의 유치원생과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특성이 제외된 경우에 Cronbach α 의 수치가 높아지거나 전체 문항과의 상관이 낮은 성역할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77개의 성역할 특성 가운데 38개가 척도제작에 사용되었다.

3차 과정을 통해 선정된 성역할 특성을 묘사하는 일련의 문항을 작성하고 문항 1에서 문항 16까지는 ‘남자’ ‘여자’ ‘남자·여자 모두’의 응답범주를, 문항 17에서 문항 32까지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의 응답범주으로써 척도를 구성하였다.

제작된 성역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60명의 유치원생과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신뢰

도를 검증한 결과,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성역할 태도 .75, 성역할 지식 .77, 2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성역할 태도 .67, 성역할 지식 .74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38개의 성역할 특성은 8명의 아동학 전공자들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인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제작된 성역할 척도으로써 성역할 태도와 성역할 지식의 두가지 측면을 측정하였다. 성역할 태도의 측정에서는 세가지 응답범주 가운데 ‘남자, 여자 모두’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의 응답에는 0점을, ‘남자’ ‘여자’, ‘좋아한다’ ‘싫어한다’의 응답에는 1점을 주었다. 또한 성역할 지식의 측정에서는 세가지 응답범주 가운데 성역할 태도에서 ‘남자, 여자 모두’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에 응답한 문항에 대해 다시 한번 ‘남자’ ‘여자’, ‘좋아한다’ ‘싫어한다’의 두가지 응답범주에만 답하도록 하여 문화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응답의 수로써 성역할 지식을 측정하였다.

2) 기억과제

기억과제는 각각 6개의 성인 남녀, 남아, 여아를 나타내는 총 24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12항목은 성과 일치하는 활동을 하고 나머지 12항목은 성과 불일치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의 그림이다. 24개의 기억과제에 16개의 SERLI(Sex Role Learning Index; Edelbrock & Sugawara, 1978)에서 발췌한 그림을 추가해 총 40개의 그림으로 기억과제 평가척도를 구성하였다.

기억과제의 제작에서 먼저 Edelbrock과 Sugawara(1978), Carter와 Levy(1989)의 자료 및 앞서의 성역할 특성에 대한 자료를 근거

로 24개의 그림을 선정해서 기억과제를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 모든 그림의 식별에 곤란이 없었으며 75% 이상에서 남성적 혹은 여성적인 활동으로 구분되어졌다. 또한 기억과제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내적합치도 (Cronbach α) 계수는 성과 일치하는 활동 .75, 불일치하는 활동 .74로 나타났으며, 아동학 전공자 8명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인정되었다.

기억과제의 점수는 1주일 전에 제시한 24개의 기억과제에 16개의 그림을 추가한 기억과제 평가척도를 제시했을 때, 아동이 1주일 전에 보았던 그림을 보았다고 하거나 보지 않았던 그림을 보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1점을, 보았던 그림을 보지 않았다고 하거나 보지 않았던 그림을 보았다고 했을 때는 0점을 주었다.

3) 선호과제

선호과제는 남성, 여성, 중성의 세가지 형태의 그림 18쌍인데, 그 중에서 6쌍은 남성-여성쌍, 6쌍은 남성-중성, 여성-중성쌍, 6쌍은 남성-남성, 여성-여성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호과제의 제작도 기억과제와 동일하게 Edelbrock과 Sugawara(1978), Carter와 Levy(1989)의 자료와 앞서의 성역할 특성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18쌍의 그림을 선정해서 선호과제를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 모든 그림의 식별에 곤란이 없었으며 중성적인 사물의 그림 6개를 제외한 나머지 그림은 75% 이상에서 남성적 혹은 여성적 특성을 지닌 사물로 평가되어졌다. 또한 신뢰도 검증 결과 내적합치도 (Cronbach α)는 .88, 2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로 나타났으며, 아동학 전공자 8명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인정되었다.

제작된 선호과제로써 동일하게 짝지워진 쌍

(남성-남성, 여성-여성)과 상이하게 짝지워진 쌍(남성-여성, 남성-중성, 여성-중성)에 대한 반응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해서 도식지지점수와 도식촉진점수를 구하고 이를 선호반응 점수로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이상과 같이 제작된 척도를 사용하여 본조사의 자료는 1993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서울 시내에 위치한 1개 국민학교와 2개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2회의 면담과정으로 구성된다. 1차 면담에서는 성역할 태도와 지식(문항 1-16)을 측정하고 기억과제와 선호과제를 제시했으며, 2차 면담에서는 1주일 전에 제시한 기억과제를 평가하고 나머지 성역할 태도와 지식(문항 17-32)을 측정하였다.

2회의 면담과정을 거쳐 수집된 본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내적합치도 (Cronbach α)는 성역할 지식 .73, 성역할 태도 .73, 기억과제 .81, 선호과제 .91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이상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성도식이 구성요소모델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관분석을, 아동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성도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하고 추후 검증에는 Scheffé test와 판별분석을 하였다. 또한 아동의 성도식과 성관련 과제의 기억 및 선호와의 관계분석에는 종속적 t검증(paired t-

test), 이원변량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구성요소모델과 아동의 성 도식

아동의 성 도식이 구성요소모델에 근거해서 세 영역으로 측정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영역별 점수들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각 영역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은 구성요소간의 연합보다는 구성요소내의 연합과 보다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에 비해 구성요소내의 연합은 구성요소간의 연합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어진 성역할 특성을 근거로 성별을 추론하는 것보다 이를 근거로 또 다른 성역할 특성을 추론하는

것과는 난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Deaux와 Lewis(1984), Martin 등(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동시에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의 개념을 습득한 아동은 구성요소간의 연합보다는 구성요소내의 연합의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며 구성요소내의 연합의 개념을 습득한 아동은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의 개념을 습득한 아동에 비해 구성요소간의 연합의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아동은 가장 쉬운 개념인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을 가장 빨리 습득하며, 다음으로 구성요소내의 연합, 구성요소간의 연합의 순으로 습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영역별 상관관계를 연령별로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 구성요소모델의 영역간 상관계수(성역할 지식)

연령	성역할 지식	성별과구성요소연합	구성요소내연합	구성요소간연합	전 체
5 세	성별과 구성요소 연합		.35***	.06	.81***
	구성요소내 연합			.22	.69***
	구성요소간 연합				.52***
	전 체				
7 세	성별과 구성요소 연합		.41***	.14	.76***
	구성요소내 연합			.22	.71***
	구성요소간 연합				.66***
	전 체				
9 세	성별과 구성요소 연합		.11	.07	.42***
	구성요소내 연합			.16	.51***
	구성요소간 연합				.82***
	전 체				

*** p < .001

표 1에서 아동의 전반적인 성역할 지식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영역을 살펴보면, 5세 아동은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이, 7세 아동은 세 영역 모두에서 거의 유사한 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9세 아동은 구성요소간의 연합이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세와 7세 집단에서는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은 구성요소내의 연합과 상관이 있었으나 어느 연령 집단에서도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 및 구성요소내의 연합은 구성요소간의 연합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전반적인 성역할 지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5세 집단에서는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이, 9세 집단에서는 구성요소간의 연합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7세 집단은 그 과도기적인 단계임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9세 집단에서 구성요소간의 연합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남성, 여성의 성별에 대한 정보보다는 특정한 성격특성에 대한 정보가 대상을 판단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Locksley 등(198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동시에 구성요소모델을 사용할 경우 아동의 성역할 지식은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구성요소 모델의 영역간 상관계수(성역할 태도)

연령	성역할 태도	성별과 구성요소 연합	구성요소내 연합	구성요소간 연합	전 체
5 세	성별과 구성요소 연합	.27	.31**		.75***
	구성요소내 연합		.57***		.76***
	구성요소간 연합				.79***
	전 체				
7 세	성별과 구성요소 연합	.41***	.37**		.82***
	구성요소내 연합		.60***		.77***
	구성요소간 연합				.78***
	전 체				
9 세	성별과 구성요소 연합	.39***	.06		.82***
	구성요소내 연합		.38**		.70***
	구성요소간 연합				.58***
	전 체				

** p < .01 ***p < .001

그러나 표 2에서 아동의 성역할 태도는 지식과는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령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이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고 동시에 세 영역간에도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연령, 성별과 아동의 성 도식

아동의 성 도식이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연령에 따라 성역할 지식($F=53.31, p<.001$) 및 성역할 태도($F=7.9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역할 지식은 점차 증가하고 보다 융통성있는 성역할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추후검증 결과, 성역할 지식과 성역할 태도 모두에서 5세 집단은 7세, 9세 집단에 비해 유의한 점수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5세 아동은 7세나 9세 아동에 비해 성역할 지식 수준은 유의하게 낮으며 동시에 성역할 태도는 상당히 고정관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영역별 점수차이에 대한 다변량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연령, 성별에 따른 영역별 점수의 다변량분석

성역할 지식	Wilks'lambda	F	성역할 태도	Wilks'lambda	F
성 별	.98	1.05	성 별	.99	.31
연 령	.60	16.65***	연 령	.86	.46***

*** $p<.001$

표 3의 다변량분석 결과, 연령은 성역할 지식과 태도 모두에서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변인의

효과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추후검증으로 판별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성역할 지식의 하위영역별 판별수준

판별변인	연 령	5 세	7 세	9 세	전 체
구성요소간 연합	5 세				
	7 세	22.27***			30.11***
	9 세	59.24***	8.75**		
구성요소내 연합	5 세				
	7 세	23.58***			21.95***
	9 세	45.08***	4.51*		
성별과 구성요소 연합	5 세				
	7 세	18.25***			16.54***
	9 세	34.46***	3.26*		

* $p<.05$ ** $p<.01$ *** $p<.001$

표 4에서 성역할 지식의 세 영역 가운데 판별력이 가장 높은 함수는 구성요소간의 연합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구성요소내의 연합,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모든 연령집단에서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습득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간의 연합이 제외된다면 성역할 지식의 판별은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은 비교적 쉬운,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을 가장 빨리 습득하고 다음으로 구성요소내의 연합, 구성요소간의 연합을 습득하게 되며, 구성요소간의 연합에 대한 지식은 9세까지 계속 증가한다는 Martin 등(1990)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표 5에서 아동의 성역할 태도의 세 영역 가운데 판별력이 가장 높은 함수는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이며, 다음이 구성요소간의 연합, 구성요소내의 연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집단간의 차이도 5세 집단과 7세, 9세 집단간에서만 유의한 점수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느 영역에서도 7세와 9세 집단간에는 유의한 점수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동이 성 정체감의 개념을 습득하는 시기에는 강한 고정관념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성도식 이외의 다른 도식들이 존재하게 되므로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Markus et al., 1982a, 1982b; Martin & Halverson, 1981)는 성도식 이론의 관점과도 일치하고 있다.

〈표 5〉 성역할 태도의 하위영역별 판별수준

판별변인	연령	5세	7세	9세	전체
성별과 구성요소 연합	5세				
	7세	7.19**			9.98***
	9세	19.69***	3.05		
구성요소간 연합	5세				
	7세	5.02**			5.73***
	9세	11.17***	1.52***		
구성요소내 연합	5세				
	7세	3.88**			4.51***
	9세	8.88***	1.22		

** p < .01 *** p < .001

3. 아동의 성도식과 성관련 과제에의 기억

아동의 성도식이 성관련 과제에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기억과제의 특성에 따른 기억의 차이, 아동의 성역할 지식 및 성역할 태도와 기억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연령, 성별, 성역할 지식, 성역할 태도가 기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기억과제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성과 등장인물의 성이 일치하는 과제에 대한 기억점수가 불일치하는 과제에 대한 기억점수에 비해 ($t=5.20, p<.001$), 등장인물의 성과 활동이

일치하는 과제에 대한 기억점수가 불일치하는 과제에 대한 기억점수에 비해($t=5.06, p<.001$)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 도식이 개인의 기억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성 도식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Markus et al., 1982a). 또한 아동의 성과 등장인물의 성이 일치하는 과제와 불일치하는 과제에서의 기억점수의 차이는 연령($F=7.3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후속검증 결과, 7세, 9세 집단에 비해 5세 집단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5세 집단에서 아동의 성 도식이 기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성역할 지식 및 성역할 태도의 영역별 점수와 기억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구성요소내의 연합에 대한 성역할 태도를 제외

한 모든 영역에서 성역할 지식과 태도는 기억점수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성역할 지식과 태도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성과 등장인물의 성이 일치하는 과제와 불일치하는 과제, 등장인물의 성과 활동이 일치하는 과제와 불일치하는 과제 모두에서 기억점수의 차이는 고정관념적 태도를 가진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정관념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아동일수록 성과 일치하는 과제에 대한 기억력은 우세한 반면 불일치하는 과제에 대한 기억력은 낮다는 사실을 의미한다(Bem, 1981; Carter & Levy, 1988).

다음으로 이들 변인들 가운데 먼저 연령, 성별 변인을, 다음으로 성역할지식과 태도를 단계별로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 성별 변인의 종속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19.6%로 나타났다.

〈표 6〉 기억에 대한 회귀분석 I

변 인	B	SEB	Beta	R ² 누적량	R ² 변화량	t	
연 령	2.319	.563	.345	.179	.179	4.12***	
성 별	1.441	.738	.131	.196	.017	1.95	
성역할 태도	-.251	.117	-.150	.218	.022	-2.15*	
성역할 지식	.107	.147	.061	.221	.003	.73	
R ² =.221				F=12.45***			

〈표 7〉 기억에 대한 회귀분석 II

변 인	B	SEB	Beta	R ² 누적량	R ² 변화량	t	
연 령	2.245	.579	.334	.179	.179	3.88***	
성 별	1.498	.737	.136	.196	.017	2.03*	
구성요소내(태도)	.459	.445	.083	.197	.001	1.03	
성별과 구성요소(지식)	.472	.265	.137	.211	.014	1.78	
성별과 구성요소(태도)	-.460	.207	-.167	.233	.022	-2.22*	
구성요소간(지식)	-.240	.311	-.061	.235	.002	-.77	
구성요소간(태도)	-.511	.328	-.123	.246	.011	-1.56	
구성요소내(지식)	-.091	.411	-.019	.246	.000	-.22	
R ² =.246				F=7.02***			

* $p<.05$ *** $p<.001$

표 6에서 성역할 지식과 성역할 태도가 각각 하나의 변인으로 분석되었을 경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5%가 증가했으며, 연령과 성역할 태도가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7에서와 같이 구성요소모델에 근거해 각각 세개의 변인으로 분석되었을 경우에는 설명력은 5%가 증가했으며 연령, 성별, 구성요소의 연합에 대한 태도가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변인 중에서 연령이 기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연령과 성별을 통제했을 때 다른 변인들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비록 개인의 성역할 지식이나 태도가 성도식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발달적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Martin & Halverson, 1981, 1983)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성역할 지식이나 태도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곧 성도식화 과정에서 연령변인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연령변인의 효과 때문에 성역할 지식이나 태도가 기억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쇄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아동의 성도식과 성관련 과제의 선호

아동의 성도식이 성관련 과제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먼저 선호과제의 특성에 따른 선호반응의 차이, 성역할 지식 및 태도와 선호반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연령, 성별, 성역할 지식, 성역할 태도가 성관련 과제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선호과제의 특성에 따른 반응시간에서 도식저지점수와 도식촉진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7.73, p<.001$). 이는 자신의 성도식과 일치하는 속성에 대한 반응시간은 빠르고 불일치하는 속성에 대한 반응시간은 느리다는 선행연구결과(Bem, 1981; Levy, 1989b)와 일치하는데, 만약 아동이 성도식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반응시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아동의 성역할 지식 및 태도와 선호반응과의 상관관계는 구성요소내의 연합에 대한 지식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지식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점수가 높아질수록 도식촉진점수와 도식저지점수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아동의 성역할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동일한 성역할 쌍으로 짝지워진 과제와 상이한 성역할 쌍으로 짝지워진 과제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변인 중에서 먼저 연령, 성별 변인을, 다음으로 성역할 지식과 태도를 단계별로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과 성별변인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5.7%로 나타났다.

표 8에서 성역할 지식과 성역할 태도가 각각 하나의 변인으로 분석되었을 경우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2.1%가 증가했으며 성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9에서와 같이 각각 세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분석되었을 경우에는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6.1%가 증가했으며, 연령, 성별,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에 대한 태도가 선호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련 과제의 기억과는 달리 성별 변인은 아동의 선호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에 대한 태도가 선호반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성 정체감의 습득만으로도 성도식화가 이루어진다는 성도식

이론의 가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성역할 지식과 태도의 영향이 적게 나타난 점은 기억과제와 마찬가지로 연령 및 성

별 변인의 상쇄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선호반응에 대한 회귀분석 I

변 인	B	SEB	Beta	R ² 누적량	R ² 변화량	t	
연 령	-.156	.084	-.170	.030	.030	-1.86	
성 별	-.225	.110	-.150	.057	.027	-2.05*	
성역할 태도	-.033	.017	-.145	.074	.017	-1.91	
성역할 지식	-.017	.022	-.072	.078	.004	-.79	
R ² =.078				F=3.70**			

* p<.05 ** p<.01

〈표 9〉 선호반응에 대한 회귀분석 II

변 인	B	SEB	Beta	R ² 누적량	R ² 변화량	t	
연 령	-.188	.086	-.204	.030	.030	-2.19*	
성 별	-.230	.109	-.153	.057	.027	-2.11*	
구성요소내(태도)	.073	.066	9.449	.058	.001	.11	
성별과 구성요소(지식)	-2.593	.039	-5.531	.060	.002	-.01	
성별과 구성요소(태도)	-.083	.031	-.221	.101	.041	-2.72**	
구성요소간(지식)	.042	.046	.079	.102	.001	.92	
구성요소간(태도)	.025	.048	.043	.104	.002	.51	
구성요소내(지식)	-.102	.061	-.146	.118	.014	-1.67	
R ² =.118				F=2.87**			

* p<.05 ** p<.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구성요소모델을 사용하여 아동의 성역할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고, 이러한 성역할 지식과 태도가 성관련 과제의 기억과 선호반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성 도식 이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했으며,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성역할 지식과 태도는 구성요소 모델을 사용해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성관련 과제의 기억 및 선호반응에 대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성역할 지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성역할 태도에서는 융통성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아동의 성역할 지식을 가장 잘 판별하는 변수는 구성요소간의 연합이며, 성

역할 태도는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으로 나타났다.

세째, 아동의 성과 등장인물의 성이 일치하는 과제에 대한 기억점수가 불일치하는 과제에 비해, 등장인물의 성과 활동이 일치하는 과제에 대한 기억점수가 불일치하는 과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정관념적 성역할 태도를 갖는 집단에서 이러한 기억점수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으며, 연령과 성별 변인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도 성역할 태도가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도식촉진점수와 도식저지점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역할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이러한 점수차이는 크게 나타났으며, 기억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역할 태도가 선호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별과 특정한 성역할 특성의 연합을 통해 아동의 성역할 개념을 파악해 왔던 종래의 연구에서 벗어나, 본 연구에서는 구성요소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특성으로 인해 구성요소내의 연합이나 구성요소간의 연합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동의 성역할 개념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기억과제의 특성에 따른 기억점수의 차이는 고정관념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 집단에서, 연령별로는 5세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선호반응에서의 도식촉진점수와 도식저지점수의 차이는 성역할 지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기억과제와 선호과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점수차이는 5세 아동의 성역

할 지식수준이 낮고 고정관념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곧 5세경의 아동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엄격하게 성 도식을 적용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고정관념의 수정효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나타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령변인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성역할 고정관념의 수정은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세째, 성 도식이 아동의 기억 및 선호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곧 수정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도 고정관념화된 행동이 아니라 평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도식이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러한 행동을 수정하기 보다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역할 고정관념의 수정은 행동자체보다는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개인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선행될 때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본 연구가 비록 개별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1차면접에서 2차면접까지의 1주일 동안 연구대상들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차단시킬 수 없었다. 또한 사용된 척도의 제약으로 연구대상을 3세 아동까지 확대시키지 못했던 점은 후속 연구에서 계속 보완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이영민(1989). 아동의 성상동화 도식 기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연(1985). 성역할 사회화 이론의 최신경향. 아세아 여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4, 167-174.
- 이춘희(1984). 고정관념화된 이야기와 비고정관념화된 이야기에 대한 아동의 선호도와 회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순화(1992). 성과 관련된 과제의 선호에서의 성 도식의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13(2), 65-81.
- Bem, S. L. (1981). Gender schema theory: A cognitive account of sex-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4), 354-364.
- _____ (1983). Gender schema theory and its implication for child development: Raising gender-aschematic children in a gender-schematic society. Signs, 8(4), 598-616.
- Bigler, R. S., & Liben, L. S. (1990). The role of attitudes and interventions in gender-schematic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61, 1440-1452.
- Carter, D. B., & Levy, G. D. (1988). Cognitive aspects of early sex-role development: The influence of gender schema on preschoolers' memories and preferences for sex-typed toys and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59(3), 782-792.
- Case, R. (1985). Intellectual Development. Orlando, Florida: Academic Press Inc.
- Cohen, C. E. (1981). Person categories and social perception: Testing some boundaries of processing effects of prior 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3), 441-452.
- Deaux, K., & Lewis, L. L. (1984).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 Edelbrock, C., & Sugawara, A. I. (1978). Acquisition of sex-typed preferences in preschool ag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4(6), 614-623.
- Grant., P. R., & Holmes, J. G. (1981). The integration of implicit personality theory schemas and stereotype imag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4, 107-115.
- _____ (1982). The Influence of stereotypes in impression formation: A reply to Locksley, Hepburn & Ortiz.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5, 274-276.
- Kohlberg, L. A. (1966). A cognitive 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 E. Maccoby(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 Kropp, J. J., & Martin, C. L. (1983). Preschool children's preferences and recall for stereotyped versus nonstereotyped stories. Sex Roles, 19, 261-274.
- Levy, G. D. (1989a). Development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preschoolers' recognition memories: The influence of gender schematization and verbal labeling of information. Sex Roles, 21, 305-325.

- _____ (1989b). Relations among aspects of children's social environments, gender schematization, gender role knowledge, and flexibility. Sex Roles, 21, 803-823.
- Levy, G. D., & Carter, D. B. (1989). Gender schema, gender constancy and gender role knowledge: The role of cognitive factors in young children's gender-role stereotype attribu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444-449.
- Liben, L. S., & Signorella, M. L. (1980). Gender-related schemata and constructive memory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1), 11-18.
- Locksley, A., Hepburn, C., & Ortiz, V. (1982). On the effect of social stereotypes on judgements of individuals: A comment on Grant and Holmes on implicit personality theory schemas and stereotypic imag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5, 270-273.
- Markus, H., Crain, M., Bernstein, S., & Siladi, M. (1982a). Self-schemas and gend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1), 38-50.
- _____ (1982b). Gender schema theory and self schema theory compared: A component on Markus, Crain, Bernstein, and Siladi's self schema and gend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6), 1192-1194.
- Martin, C. L., & Halverson, C. F. Jr. (1981). A schematic processing model of sex typing and stereotyping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4), 1119-1134.
- Martin, C. L., Wood, C. H., & Little, J. K. (1990). The development of gender stereotype components. Child Development, 61, 1891-1904.
- Mischel, W. (1966). A social learning view of sex differences in behavior. In E. E. Maccoby (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 Serbin, L. A., & Sprafkin, C. (1986). The salience of gender and the process of sex typing in three to seven-year-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 1188-1199.